

# 濟州島方言 語彙考(二)

(屈曲에서의 [-마씀]을 중심으로)

姜 根 保

## 一 目 次 一

- I 序 言
- II 終結形式과 [-마씀]
- III 修飾形式과 [-마씀]의 添加
- IV 連結形式에서의 [-마씀]
- V 体言과 [-마씀]
- VI 結 言

## I 序 言

1. 1. 濟州島方言의 活用이나 曲用에 있어서 標準語나 他地域의 方言과는 相當한 距離를 나타내는 語尾 格助詞 등이 許多하다. 이 가운데서 特別히 方言의 特色을 드러내는 語形의 하나로 “가카마씀” “가아마씀” “가겐마씀” “적마씀”과 같이 用言의 語末語尾나 体言에 添加 後行하여 尊敬의 뜻을 表示하는 {-마씀} (massum)이 쓰여진다.

그런데 {-마씀}은 그 形態가 {-마썸}, {-마심}, {-말심}이 共存하고 있으나 比較的 地域의 으로 널리 分布하고 使用되기는 {-마씀} 形態인 것이다. 그래서 本考의 展開에서는 優勢한 {-마씀} 形態를 表記의 定型으로 삼으려 하거니와 그 機能과 形態의 特殊性에서 이에 對한 論述이 不少함을 볼 수 있다.<sup>1)</sup> 特別히 記述의 方法으로 機能을 中心으로 한 {-마씀}의 究明은 濟州島方言 (以下 方言)에 있어서 敬語法의 整然한 體系를

1) 李崇寧: “濟州島方言의 形態論的 研究” 「國語學論攷」, 서울, 1960, p. 350.  
玄平孝: 「濟州島方言의 定動詞語尾研究」, 1974, pp. 68-69.

確立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따라서 {-마씀}의 機能面에 對한 論及은 蛇足이 되겠으므로 本考에서는 오직 {-마씀}의 意味內容과 形態의 形成 發達을 考察하는데 主眼點을 두기로 한다.

그리고 이를 爲한 展開는 方言에서도 生活語를 語例로 하여 形式과 叙法에 따라 {-마씀}에 先行하는 形態要素의 共通된 成分을 抽出함으로써 後行하는 {-마씀}의 形成과 語意를 定立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共時的 考察을 基底로 하여 文獻語의 資料에서 形成의 補完과 發達의 樣相을 對比하는 次例로 단락을 지으려 한다.

## Ⅱ 終結形式과 {-마씀}

2. 1. 方言에서 終結形式의 叙述形으로 흔히 쓰여지는 語例를 들고 {-마씀}에 先行하는 語尾形態의 機能的인 條件을 살피기로 한다.

例 1 : ①·우린 오늘 옥지 간다.

② 가인 밥도 잘 먹나.

③ 난 널 집의 가키여.

④ 난 집의 가쿠다.

⑤ 가의 집드레 가네.

⑥ 공뷔도 놀지 아니허연 허염네.

⑦ 자인 공뷔 잘허여.

⑧ 가인 공뷔도 잘허꼭 공도 잘차아.

⑨ 가인 밥도 잘먹어.

⑩ 난 옥지 감수다.

⑪ 이게 옷 마십어우다.

例의 發話에서 /-다/, /-나/, /-여/, /-네/, /-네/, /-여/, /-아/, /-어/, /-겐/은 動詞의 活用に 있어서 最終位置에 오는 語尾로 그 文法要素는 終結形式이고, 叙法으로는 叙述形을 나타낸다. 이 語末語尾에 時相의 /-ㄴ-/, /-ㅁ-/과 尊待의 /-우-/系列 (-우다, -수다.

—쿠다) 등이 先行되어 나타난 形態(간다, 감네, 가키여, 가쿠다, 감수다, 이우다)와 修飾形式(副動詞形)과 同一한 形態인 /—아/, /—어/가 先行한 語尾 卽, 先語末語尾가 接中되지를 아니한 두 形態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標準語에서 처럼 方言에서도 終結形式(定動詞形)에 敬語·時相等의 先語末語尾가 接中할 수 있는 것이나, 副動詞形에는 特히 相待尊待의 先語末語尾는 接中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例 1의 方言形 /—아/—어/는 終結形式의 文法的 要素이지마는 元來의 副動詞의 用法은 喪失하지 않았음을 示顯하는 構成이 있는 것이다. 卽

공도 잘 차아.

가인 밥도 잘 먹어.

두 發話에서 語末語尾 /—아/—어/는 終結形式으로 相對尊待를 나타내는 形態가 先行할 수 없기때문에 發話主体者가 聽者에 對한 尊待의 表示로는

공도 잘 차아 마씀.

가인 밥도 잘 먹어 마씀.

과 같이 語末語尾 /—아/, /—어/에 “마씀”이 後續 添加된 構造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마씀}은 相對尊待의 表示로 添加되는 形態이고 添詞라고도<sup>2)</sup> 呼稱한다. 그리고 /—아/—어/, /야/여/ 以外的 終結形式의 語末語尾인 /—다/에는 相對尊待의 先語末語尾를 가질 수 있으므로 해서 尊待表示의 /—우—/—수—/—쿠—/가 接中될 경우에는 相對尊待의 二重을 기피하여 “마씀”을 配合하지 않는 것이고, /—니—/는 /—ㄴ/과 叙述形語尾 /—아/와의 결합한 形態이라 {-마씀}을 配合한다. (X는 마씀이 첨가하지 않음을 表示함)

例 2 : ① 난 가쿠다. X

② 가인 가수다. X

③ 나사 가나 오나 마씀.

2) 玄平孝 : lbid, p. 69.

밥을 먹다. X

- ④ { 밥을 먹단 마씀.
- { 밥을 먹다가 마씀

이와같이 {-마씀}은 語末語尾에 添加하여 主로 尊待의 뜻을 나타내는 添辭(尊待添詞)로서 終結形式의 副動詞形의 語尾에 配合됨을 基底로 하고, 余他 語末語尾에는 尊待의 重複을 回避하고 있는 것이다.

2. 2. 위의 敘述形에서와 類似한 {-마씀}의 첨가현상을 疑問形語尾에 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우선 方言에서 疑問形語尾의 形態 /-가/, /-고/, /-나/, /-서/, /-냐/, /-니/, /-다/, /-디/, /-리/, /-라/, /-코/, /-아/, /-어/ 등이 있는바 이 語末語尾 가운데서 /-아/-어/ 는 2. 1.에서 言及한 바와같이 形態가 副動詞形語尾인 것과 마찬가지로 /-고/-서/ 亦是 同一한 機能으로 쓰여지는 것이다.

- 例 3 : ① 가아 놀라.  
 ② 심어 볼브라.  
 ③ 가고 보라.  
 ④ 가서 보라.

例 3의 ①②③④에서 被修飾語인 놀라·볼브라·보라 代身 “마씀”을 첨加하면,

- 가아 마씀?
- 심어 마씀?
- 가고 마씀?
- 가서 마씀?

과 같이 疑問形으로 相對尊待의 表現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나/, /-니/, /-리/는 尊待의 先語末語尾를 接中하지 않는 終結形式이라서 {-마씀}의 添加現象도 찾을 수 없다. 다만 /-디/는

간디 오래였지  
 간지 오래였지  
 갈디 알아지여  
 갈지 알아지여

例와 같이 /-디/와 /-지/는 並用되는 事實로 보아서 /-아/, /-어/와 同一機能의 語末語尾라 할 수 있겠다.

疑問形으로서 주로 使用되는 語末語尾로는 上記한 /-가/, /-나/, /-라/, /-젠/이 있다.

- 例 4 : ① 집이 신가?  
 ② 집에서 노나?  
 ③ 언제 오라?  
 ④ 무사 집이 가젠?

例 4 를 尊待形으로 還元하면

- ① 집의 신가 마씀?  
 ② 집에서 노나 마씀?  
 ③ 언제 오라 마씀?  
 ④ 무사 집이 가젠 마씀?

文脈的 意味가 同一한 疑問形이 되어 /-가/, /-나/, /-라/는 {-마씀}이 添加가 可能함을 보이는 것이다. 이와같이 終結形式임에도 不拘하고 添加의 可能性이 있음은 다음의 例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신가 보난  
 오나 보난  
 오라 보난

例의 “신가”는 “있는가”의 方言形이다. 標準語의 活用語尾 /-는가/, /-은)가/가 다음 用言과 連結形으로서 叙述語가 되는 副動詞形인 것처럼”

3) 이인모: 「새문법」, pp. 82-84

“신가”의 /-가/는 副動詞形으로서 用言 “보난”에 先行하고 있으며 이러한 機能으로 因하여 /-나/에는 {-마씀}이 첨가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예에서의 “오라 보난”의 “오라”와 “오아 보난”의 “오아”는 形態 機能에서 對應關係를 이루고 있다. “오아”의 副動詞의 機能은 “오라”도 共有하고 있어서 被修飾語는 同一한 “보난”을 取할 수 있는 것이고 {-마씀}의 첨가도 /-아/+{-마씀}, /-라/+{-마씀}과 같이 나타나는 것이다.

예의 “오나”에서 /-나/는 敘述形語尾의 /-나/에서 言及한 것처럼 그 構造를 副動詞形의 成分으로 볼 수 있으며 語意도 例 4. ①의 /-나/ 副動詞形과 一致하다.

이상 敘述해 온 疑問形은 標準語와 同一한 語末語尾인 것이나, 本島方言에서만이 唯獨 나타나는 疑問形語尾로서는 /-카/, /-코/가 있다. 그런데 이 /-카/, /-코/는 다음과 같은 形態의 分析이 이루어진다.

- /ㄱ/(kh) + 아 (-카-) ..... 가카?
- 어 (-케-) ..... 가케라
- 오 (-코 ) ..... 가코?
- 우 (-쿠-) ..... 가쿠다
- 으 (-크-) ..... 가크라
- 키 (-키-) ..... 가키여

위 /ㄱ-/(kh)는 時相이 未來의 機能으로 나타나고 叙法으로 意圖, 推定을 表示하는 形態로서 副動詞形語尾(疑問形語尾로 쓰임) /-아/와 결합하여 語尾 /-카/가 이루어진 것이고, {-카}에 {-마씀}이 첨가하는 것은 “副動詞形+{-마씀}”의 共通的인 添加形式에 불과한 것이다.

- ① 날랑 집의 가카?
- ② 난 어딜 가코?

의 發話에 “마씀”을 첨가하면

날랑 집의 가카 마씀?

난 어딜 가코 마씀?

은 例 ①②와 同一한 疑問形에 尊待의 뜻이 表現된 發話形式으로 바뀐 것이다. 그런데 “가카”를 標準語로 옮기면 “갈까”에 該當하는 文脈的 意味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語末語尾 /-카/가 方言形으로 語形이 形成된 過程을 엿보게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카 (ㄹ+가)

-커라 (ㄹ+거+라)

語幹+ -코 (ㄹ+고)

-쿠다 (ㄹ+거+우+다)

-크라 (ㄹ+거/ㅋ+라)

-키여 (ㄹ+거+여)

위에서와 같이 /-카-/는 /-ㄹ+/+/-가/와 對應을 이루고 따라서 /-ㅋ/(kh)은 /ㄹ+/+/-ㄱ/에 對應하는 것이다. 이러한 對應關係는 끝끝:쿨쿨  
걸걸:킬킬, 팔팔:팔팔, 갈갈:갈갈 등의 象徵語를 비롯하여, 관술:술  
꼭:술꼭, 살카죽:술까죽:술가죽, 살고기:술케기:술케이 等 方言과 標準語에서 흔히 찾을 수 있다.

이와같이 /-카/는 /ㅋ(kh)/+/-아/의 形態로 分析하는 共時的인 記述로서도 앞에 말한 것처럼 {-마씀}의 첨가할 수 있는 成分上的 要件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ㄹ+/+/-가(까)/의 方言形이라는 通時的인 叙述에서도 /-가/의 副動詞的 成分에서 {-마씀}의 첨가는 許容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例②의 疑問形語尾 /-코/도 /ㄹ+/+/-고/ㅍ/의 方言形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마씀”이 添加는 /-카/語尾와 同一要件인 것이다. 그러나 /-카/, /-코/의 通時的 究明은 本考에서 주안하는 바가 아니므로 다만 提示에 그치기로 한다.

다음에 들을 수 있는 疑問形語尾로 /-냐/, /-다/, /디아/, /티아/, /-순/ 등이 있으나 이들 語尾는 모두가 語末에 /-ㄴ/(n) 또는 /-ㅣ/+ /-ㄴ/(-i+-n/)음이 添加되어 副動詞形으로 바뀌고서 {-마씀}이 添加





것이나, ②의 /-자/는 {-마씀}이 添加되는 發話를 찾기 힘들다. 이는 {-마씀}이 統辭構造의 序例位置에서 先行하는 形態에 制約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尊待意識에서 露出되는 것이라 보고자 하는 것이다. 卽 終結形式으로 쓰여짐을 主된 機能으로 하는 形態이다.

그리고 例 ③④⑤의 語末語尾 /-주/形態는 “나영 가주” “나영 가줘” “나영 가져”와 같이 /-줘/, /-저/가 共存하며, 各各 “가주 아니가” “가저(가쟁) 말라” 등 그 機能에서 {-마씀}이 添加를 규제함이 없는 副動詞形用法이 具有하고 있는 것이나, 그 發話의 例가 혼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마씀}의 添加는 相對尊待의 {-日}이 先行한 發話形式에도 添加되는데 이것은 尊待의 表示보다는 催促 懇請의 文脈的 語意가 內包하고 있는 것으로 聽取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相對尊待의 重複을 回避하고 있다할 것이다.

이로써 請誘形語尾에 {-마씀}의 添加로 尊待의 表示를 하는 連結의 樣相은 {-계} {-주}를 爲主로 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請誘形과 形態의 同一하나 그 機能을 달리하고 있는 語尾로 命令形語尾 /-라/, /-아/, /-계/, /-주/, /-삼/, /-순/, /-서/ 등이 있으나 이들이 {-마씀} 添加의 構造的 要件은 前述한 敘述·疑問形語尾와 共通의 樣相을 띠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考察은 略하기로 한다.

以上에서 終結形의 叙法樣式과 이 叙法範疇를 지닌 尊待添辭 {-마씀}이 添加할 수 있는 構造的 位置를 살펴온 것이다. 이제 {-마씀}에 先行하는 語尾의 成分을 明瞭케 하는 意圖에서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構造成分上으로는 /-아/, /-계/, /-어/, /-서/ 등과 같은 副動詞形語尾에 {-마씀}은 添加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音韻的 配合條件으로는 /-아/, /-어/ 等 母音에 {-마씀}은 優先 後行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尊待等位로 본 添加樣相은 相對尊待의 {-日-} {-우-}가 接中된 尊待表示의 發話形式에서는 {-마씀}은 添加를 避하는 것이다.

셋째, {-마씀}의 統辭的 序列은 文尾에 位置하고 話者가 聽者에 對한

尊待의 表示를 主된 機能으로 한다. 그러므로 機能面에서 {—마씀}은 尊待添詞라는 이룰 수 있겠다.

## Ⅱ 修飾形式과 {—마씀}의 添加

3. 1. 다음은 修飾形式 가운데서 {—마씀}이 添加할 수 있는 形式을 例示에서 가려내고 그 構成成分은 어떤가를 밝히려 한다.

例 8 : ① 가아 보라 와시냐?

② 가이영 가게 내볼라.

③ 구경가키엔 마릅디다.

④ 심어 보넵디다.

⑤ 구경가렌 마릅디다.

⑥ 옥지 간덴 마릅디다.

⑦ 강 마릅서.

⑧ 가안 마릅디다.

⑨ 먹어 갑서.

⑩ 가서 봅서.

例 8에서 /—아/, /—게/, /—엔/, /—렌/, /—멘/, /—○/, /—ㄴ/, /—양/, /—안/, /—어/, /—서/는 모두 修飾構成型으로서 用言이 後行하고 있다. 이 後行하는 用言에 {—마씀}이 代置되면 文意는 다르나 日常對話의 場面에서 들을 수 있는 發話形式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語幹(가) + 語尾	}	—아/어	} + 마씀	… 敘述形, 疑問形, 命令形
		—게		… 請誘形
		—키엔		… 敘述形, 疑問形
		—렌(으렌)		… 敘述形, 疑問形
		—ㄴ덴		… 敘述形, 疑問形
		—양/영		
		—안/언		… 敘述形, 疑問形
		—서		… 敘述形, 疑問形, 命令形

위 圖示에서 語幹末母音이 /아/나, /어/나에 따라 語末語尾가 /-아/, /-어/로 區分되고 있으며, 그리고 終結形式의 여러 叙法이 副動詞形의 語尾形態와 代置할 수 있는 形態이므로 後行하는 用言을 除去하면 {-마씀}의 添加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와같이 副動詞形語尾에서 {-마씀}의 添加現象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言語事實은 {-마씀}의 成分을 理解하는데 決定的인 구실을 할 것이라 믿는다. 다음은 修飾形式에서 體言의 修飾機能을 나타내는 語尾形態에 對한 論及이 있어야 할 것이나, /-르/, /-는/, /-은/等 語尾에는 {-마씀}이 添加를 피하고 /-ㄴ/語尾는 /-아/, /-ㅣ-/ (i)가 先行될 경우(副動詞形語尾)에 {-마씀}이 添加되는 것으로 後述할 터이라 考察을 略하기로 한다.

#### IV 連結形式에서의 {-마씀}

4. 1. 다음에는 連結語尾 가운데서 어디서나 흔히 들을 수 있는 語例를 들고 {-마씀}의 添加相을 살피기로 하겠다.

例 9 : ① 집의서 놀당 감서.

② 야네 집의서 놀단 가쑤게.

③ 육지 가민 아니온다.

④ 석을 심으난 ㅁ만히 시여라.

⑤ 심으카부덴 드라난

⑥ 노리 잡으레 갖저.

⑦ 노리 잡으렌 ㅁ르난 아니 헛구나.

⑧ 집아 가곤 ㅁ르라.

⑨ 가명 ㅁ르불라.

⑩ 먹엉 자라.

例 9에서의 連結語尾로는 놀당, 놀단, 가민, 심으난, 심으카부덴, 잡으레, 잡으렌, 가곤, 가명, 먹엉의 活用에서 /-당/, /-단/, /-민/, /-으난/, /-으카부덴/, /-으레/, /-으렌/, /-곤/, /-명/, /-엉/等

을 들을 수 있다. 이 語尾形態들은 모두 終結形式으로 쓰여지고 {-마씀}이 添加가 可能한 것이다.

놀 +	}	당	+마씀
		단	
		민	
		난	
		카부덴	
(遊)		레	
		렌	
		곤	
		멍	
		양/영	

위 連結語尾의 末音은 副動詞形語尾의 /ㄴ/音을 가지고서 {-마씀}을 後續시키고 있는 事實이요, 例 가운데 몇 例(/당/, /멍/, /양/영/)만이 그 /o/(0)을 末音으로 하고 있으나 副動詞形語尾로 使用되어지는 /ㄴ/末音의 語尾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위 例의 /-당/, /-단/, /-난-은 “叙述形語尾+/-o/-ㄴ/” 構成임을 쉽게 알 수 있는 形式인데 /-라/, /-자/, /-가/ 등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派生形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는 집의 간덴(덴) 허영게.  
 일을 허랜 혼난 아니 한다.  
 일을 허랜 혼염주(허염주).  
 밋술 가쿠겐(겐)

위 例의 “간덴, 허랜(허랜), 혼(허)겐, 가쿠겐(겐)”은 하다, 하라, 하자, 카쿠다의 語尾에 /i/+/n/이 연결된 構成으로 {-마씀}이 添加하여 相對尊待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相對尊待의 “우가” “우다” “수다” “수가” “쿠가” “쿠다”로 終結되는 叙法에서도 “/i/+/-n/”이 結合하면 動作主가 二人이 되므로 {-마씀}은 添加할 수가 있다.

例 : 이게 무시겨우겐 마썸.

이것 책이우덴 마썸.

밥 먹어수겐 마썸.

밥 먹어수덴 마썸.

집의 시쿠덴 마썸.

即 例의 “우겐” “우덴” “수겐(겐)” “수덴(덴)”은 우가, 수가의 “-가- /+ /i/+ /-n/”, 우다, 수다의 “-다/+ /-i-/+ /-n- /”의 構成으로서 이 語尾들은 終結形式으로도 사용되기도 하고(무사! 책이우겐 무사 책이우덴!…), {-마썸}에 代置하여 動詞를 後繼시켜 發話의 形式을 취하기도 한다. (무시겨 우겐(겐) 책이우덴 마롬수다) 그리고 語意로는 “넌이다?” “넌이까라고”의 단축형인데 本島方言에서는 /ㄴ/오/이 語幹이나 語尾에 連結되어 이와같은 短縮形을 形成시키는 手法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상 叙述해 온 바 連結語尾에서의 {-마썸}의 添加하는 樣相을 要約하면, 첫째 連結語尾도 終結語尾의{形態와 同一하여 發話의 場面에 따라서는 終結形式으로 言述되는 것이다. 둘째 連結語尾는 形態의 短縮이 許多하고 이것이 本島方言의 語尾構成의 現象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短縮形의 造語手法은 “語幹+/-ㄴ/”과 “語幹+/-오/”이 恒用되는 것이다. 따라서 {-마썸}이 連結語尾에서 添加하는 要件은 先行語尾의 末音이 /-ㄴ/으로 끝나거나 /-오/으로 끝나는 副動詞形語尾어야 하고 終結形式에도 使用됨을 特色으로 한다.

이상에서 終結形式의 各 叙法과 修飾構造에서의 {-마썸}이 添加하는 樣相과 連結條件등을 考察하고 끝으로 連結語尾와의 配合關係를 살피은 것이다. 여기서 {-마썸}이 여러 語尾에 添加할 수 있는 要件으로서 共通的인 現象으로 抽出할 수 있는 것은, 序列의 分布는 文尾에 位置하여 修飾·連結의 各 叙法을 先行케 하는 成分要素를 가지고 있다. 即 修飾形式의 /-아/, /-어/, /-게/와 /-안/-언/의 構成에서 {-마썸}은 添加되고 連結形式의 /-앙/과 語尾末音의 /-아/-어/에 後行하여 尊待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마썸}은 統辭的 序列로 보아 被修飾

語의 文法的 範疇을 지닌 形態라고 할 수 있다.

## V 體言과 {-마씀}

5. 1. 前項에서 {-마씀}과 用言(主로 動詞)과의 配合關係를 主로 記述한 것이나 다음에는 體言과 {-마씀}이 어떻게 結合되느냐를 살피기로 하겠다.

### ① 代名詞+마씀

- 例10 : ① 나(나)  
 ② 자이(저애)  
 ③ 가이(그애)  
 ④ 야이(이애)  
 ⑤ 무사(왜)  
 ⑥ 어디(어디)  
 ⑦ 언제(언제)  
 ⑧ 누게(누구)  
 ⑨ 무성거(무엇)
- } +마씀

人稱代名詞의 一人稱과 三人稱, 不定稱에는 {-마씀} 連結이 아무 장애 없이 連結되나 二人稱은 다르다. 本島方言에서 二人稱代名詞로 “느, 너, 자네, 지”가 下待로 쓰이고 “어른”, “당신”이 尊待로 쓰이는데 下待에는 {-마씀} 代身 “말가”로 置換 可能하다.

- 느  
 너  
 자네  
 지
- } +말가(말이라)

그러나 尊待에는 {-마씀}이 連結되어 發話하는 것이다.

어른 마씀

당신 마씀

그리고 “이거, 저거, 그것”이나 “그거”등 指示代名詞에도 亦是 {-마씀

}은 連結된다.

이거	}	+마씀
저거		
그거		

{-마씀}이 連結된 發話는 尊待의 뜻을 나타냄은 勿論이지만 上昇調와 下降調의 區別에 依하여 疑問과 敘述로 區分된다.

② 名詞+마씀

例11: ① 저게 책 마씀?

② 아 모실이 우리 동네 마씀?

③ 이게 우리 집 마씀?

“책 마씀” “동네 마씀” “집 마씀”은 疑問法의 尊待이고, 下待의 發話인 경우는

저게 무신 책고?

저게 책가?

어느게 우리 동네라?

例와 같이 名詞+/-고/-가/-라/가 配合하고 있다. 이는 “名詞+{-마씀}”과 同一하게 名詞文을 이문 統辭構造이다. 그리고 用言의 語尾와는 {-마씀}添加의 與否가 尊待의 等位, 叙法類에 따라 制約이 加해지나 名詞에의 連結은 이러한 구애되는 要件이 없이 連結되어 尊待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책고”의 /고/는 動詞의 副詞形語尾 또는 連結語尾가 아니라 敘述格語尾의 疑問形으로 使用된 것인데 “이고”의 短縮形이다.

그리고 數詞와 {-마씀}이 添加도 代名詞나 名詞와 同一한 手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미루어 “體言+{-마씀}”은 體言의 用言의 機能으로서 곧 “體言+用言의 機能”이다. 體言에 用言의 機能을 가지게 하여 體言의

4) 李男德: “國語文法의 單位問題”, 「국어 국문학 26호」1963. p.149

陳述을 可能케 하는 要素'로는 “이다” 叙述格語尾를 든다. 따라서 {一마씀}은 “体言+이다”의 成分構造로 解釋이 可能한 것이다.

5. 2. 前項에서 叙述한 것처럼 {一마씀}은 “体言+叙述格語尾”의 構成이라고 보아 다음에는 置換吟味法을 援用하여 {一마씀}의 同意語 또는 類似語를 例示에서 抽出하고 아울러 相對的 有緣性을 살피기로 하겠다.

### ① 体言+{一마씀}

体言에 {一마씀}이 連給되면 名詞文으로 相對尊待를 나타낸다고 함은 前述한 것이다. 尊待의 對立으로는 下待 또는 平待를 생각할 수 있음은 當然하다고 할 때 下待·平待를 나타내는 語形이 무엇이며 어떻게 使用하는가에 對하여 方言에서 흔히 쓰여지는 例를 들어야겠다.

例: 나 말가?

너 말이나? : 너 말가?

느 말가? : 느 말이라?

지 말이라?

야이 말가? : 야이 말이라?

자이 말가? : 지 말이라?

가이 말가? : 가이 말이라?

위 例는 “人稱代名詞+말가(一이라)”의 構成으로 聽者和 話者와의 關係는 對等하거나 聽者가 話者보다 年下인 경우에 言述되는 이른바 相對下待의 表現이고 終結形式의 疑問의 叙法이다. 이 下等の 表現을 相對尊待로 바꾸게 되면 그 構成은 “人稱代名詞+{一마씀}”으로 된다.

即, “나 말가”는 “나 마씀” “야이 말가”는 “야이 마씀”과 같이 “말가”가 代名詞에 後行하면 下待이고, 「마씀」이 代名詞에 後行하면 尊待의 發話이다.

그러나 尊待等分에서 “말가”의 尊待形 “말이우파(쌍, 까)”가 代名詞에 後行하면 {一마씀}과 同一한 相對尊待의 表現인 것이다. 그러므로 終結疑



問形의 尊待에는

{	나 말이우까?	
	나 마씀(썸)?	
{	마이 말이우까?	자이 말이우가
	마이 마씀(마썸)?	자이 마씀(마썸)

例에서와 같이 “말이우가”가 “마씀”으로 置換이 可能한 것이고 따라서 文脈의 意味에도 다름이 없는 것이다. 다만 二人稱代名詞는 聽者 “노” “너” “지”가 下待이기 때문에 이에 呼應하여 {—마씀}은 連結될 수 없고 “마씀”의 下待인 “말가”가 連結되는 것이다. 이상의 連結關係를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으며

一人稱代名詞 +	{	말가 …………… 下待	} 서로 置換이 可能
三人稱代名詞 +		말이우가 ……… 尊待	
		마씀 …………… 尊待	
二人稱代名詞 +		말가 …………… 下待	

이와같이 置換이 可能하면 言語研究에 흔히 쓰여지는 置換吟味法의 方法으로 {—마씀}과 {말이우다}는 同意語임을 뜻하는 것임이 分明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마씀}의 同意語라고 밝힌 “말이우가”의 구조를 분석하면 “말이우가”의 “—이우가”는

말 +	{	가	} 下待
		이라	
		이나	
		이지	} 尊待
		이우다	
		이우까	

“—이라” “—이나” “—이지” 등으로 보아 敘述格語尾 “이다”에 “相待尊待의 뜻을 가진” 用語屈曲接中辭 [—우]가 插入되어 相對尊待를 나타내는 形式임을 알 수 있고 先行한 “말은” 體言活用格語尾 或은 體言屈曲接中辭

가 後行할 수 있는 成分으로 미루어 “体言+体言屈曲接中辭+用言屈曲接中辭+疑問形語尾”로 形成된 것으로 이는 前述한 “말+叙述格語尾”의 構成을 말하는 것이다.

한편 標準語에서 “말”(言語)은 下待에 使用되고 “말씀”은 尊待語로 使用되는 것과 같이 方言에의 「말가」의 尊待語는 {마씀}(말이우까)으로 使用되는 것이고 보면 “말이우까”, {-마씀}, “말씀+이나”는 同一한 文脈的 意味를 가지고 使用되는데 前二者가 方言의인 用法이고 後者가 標準語인 用法일 뿐이라는 差異인 것이다. 그래서 標準語 “말이나”의 方言形은 {마씀} “말이우까”라 할 수 있는 것이다.

## ② 用言+{-마씀}

用言+{마씀}의 文脈的 意味와 同一한 뜻을 表現하고자 할 때 {-마씀}의 置換이 可能한가. 그리고 可能하다면 어떠한 形態素類가 이에 該當할 것인가를 例를 들고 살펴기로 하겠다.

例: 脛석을 노안 마씀.

자인 집의 가양 마씀.

자인 밥을 먹고 마씀.

이젠 집의 가젠 마씀.

일허당 간덴 마씀.

어서 집의 가렌 마씀.

집의 감도 마씀.

윗 例에는 前述한 것처럼 修飾形式·連結形式으로도 使用되는 動詞語尾 /-안/, /-양/, /-고/, /-젠/, /-덴/, /-렌/, /-도/에 {-마씀}이 添加된 構成이다. 이와 같은 語尾에 添加된 {-마씀}은 다음과 같이 置換이 可能하다.

$$\text{語 幹} + \left\{ \begin{array}{c} \text{안} \\ \text{양} \\ \text{코} \\ \text{젠} \\ \text{덴} \\ \text{렌} \\ \text{도} \end{array} \right\} + \left\{ \begin{array}{l} \text{마씀} \\ \text{말이우까} \\ \text{말가(말이라)} \end{array} \right.$$

“体言+말이우까”와 같이 例의 用言에서 {—마씀}에 置換되어 添加된 “말이우까”도 相對尊待의 뜻을 나타내고, 下待의 경우에는 “말이라” “말가”가 用言語幹에 連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用言은 体言과는 달리 語幹이나 語尾에 添加되는 {—마씀}이 “말이우까”로 置換의 可能性이 一律的인 것이 아니다. 그 例로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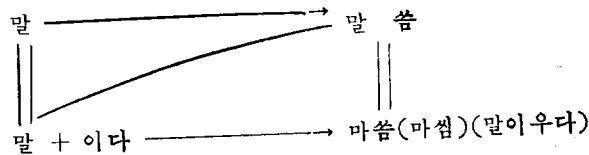
집의 가카 마씀  
 집의 가아 마씀  
 손 십어 마씀

“가카” “가아” “십어” 등을 들 수 있는 바 이들 語尾에 添加하는 {마씀}을 “말이우까” 語形으로 置換한 構造는 흔히 들을 수 있는 語例가 아니다. 이 現象은 {—마씀}과 “말이우까”가 部分同意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며 体言에서 叙述한 것과는 달리 用言에서의 {—마씀}과 “말이우까”는 오히려 類意語의 關係에서 把握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마씀”의 置換할 수 있는 語形으로 “말이우까”와 尊待의 等位的인 對立語로서 “말가” “말이라” 등 “말(言)+이다”의 活用形을 抽出할 수가 있었고 이로써 同意語 乃至 類意語의 關係에 있음을 안 것이다.

### ③ {말씀}과 {마씀(마썸)}.

尊待添詞 {—마씀}이 下待를 뜻하는 語形으로는 “말가” “말이라” “말이순” “말이심” 등이 存在하고(下待添詞라고 稱할 수도 있음), 한편 標準語에서는 “말”(言)과 尊待語인 “말씀”이 使用됨을 앞에서 言及한 것이다. 다음은 方言形 “마씀(마썸)”과 “말가(말이가)”가 對立的인 關係이고 標準語의 “말”과 “말씀”도 對立形을 이루고 있는 現象을 圖示를 통해 밝히려 한다.



即 標準語의 “말”과 方言形의 “말”은 形態에서 一致하나 그 尊待形들도 類似한 形態들을 保有하고 있다.

그리고 “말이라” 尊待形이 {-마씀}이고 “말”의 尊待形이 “말씀”인 것은 “말”形態素의 語意는 同一함을 示唆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만 {마씀}은 “말+이다”의 成分으로 解釋할 수 있는 構造의 特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씀}이 添加되는 統辭的 構造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同一形態와 同一語意였던 말·말씀으로부터 方言의 獨自의 發達을 遂行하여 形成된 語形이 “마씀”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다음에 {마씀}에로의 發達을 史的인 面에서 補完하기로 하겠다.

④ 李朝文獻에 “말씀”의 用例를 들어보면

- 1) 말씀브려 아드려 흥고라 (釋譜詳節六46)
- 2) 말숨을 잘 호느니라 (杜詩諺解初刊15)
- 3) 엇던 말소미시노 (朴通事諺解初刊上33)
- 4) 平生에 말숨을 쏘외내면 (靑丘永言)

現代國語의 “말씀”은 15C의 “말씀” “말숨”을 거쳐 16~7C의 末 “말슴” 18C의 “말슴”으로부터의 發達形으로 方言의 {-마씀}과는 第一音節 末音의 /ㄹ/을 除外하고는 /m-s-m/의 同一形態이다. 母音에서도

(文獻語)	(方言)	(文獻語)	(方言)
ㅁ술→ㅁ술→ㅁ실		ㅁㄹ→ㅁ루(로)→ㅁ리	
ㅁ술→ㅁ을→ㅁ실		ㅁㄹ→ㅁ루(로)→ㅁ리	
말씀→말씀→말십			

와 같이 “ㄹ→으→이”, “ㄹ→오” 現象이 文獻語와 方言 사이에 나타난다. 그리고 音節末音의 脫落도

文獻語	標準語	方言
말소(牛馬)〈三綱忠臣〉	마소	마쉬
송조개(救急簡易方六31)	구조개	구쟁기
송진(月印釋譜八10)	송진	송진

文獻語에서 維持된 /ㄹ/末音이 破擦音이나 摩擦音을 先行했을 경우 方言과 標準語에서 脫落하고 있다. 그리고 標準語에서는 /ㄹ/末音인 語形이 方言에서는 /ㄹ/脫落이 일어나고 있는데

標準語	方言	標準語	方言
운빼미→옥뱀		절까락→제까락	
갈대→마대		벌구슬→머쿠실	
		들돌→등돌	

예에서와 같이 破裂音에 先行하는 /ㄹ/音이 方言에서 脫落하고 있다. 이러한 變化는 連結子音의 特性에 起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一定한 法則을 세울 수는 없으나 “말씀”에서 /ㄹ/脫落的의 可能性을 充分히 示唆하는 것이므로 “말씀과 {-마씀}은 同一 起源에서 相異한 發達을 遂行한 語形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文獻語의 “말씀” 方言의 {-마씀}, {말이우까}와 語意關係를 例①에서 찾아 본다.

① 엇던 말소미시뇨 (林通事諺解初刊上38) 例를 方言으로 옮기면

- |   |   |           |
|---|---|-----------|
| A | } | 어떤 말이우까   |
|   |   | 무시거엔 말이우까 |
|   |   | 무신 말이우까   |
| B | } | 무사 마씀     |
|   |   | 무신거 마씀    |
|   |   | 어평 마씀     |

A, B와 같이 “말소미시뇨”는 置換이 可能하며 그 構造도 “말씀(말)+이다”와 같이 一致된 分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以上 形態와 語意로 보아 方言의 {—마씀}은 말씀(言)의 方言形이고 {말이우까}는 “말스미시뇨”의 發達된 形이다. 그런데 方言에서는 “마씀”과 “말이우가”를 同意語로 使用하는 것이다.

## Ⅵ 結 言

濟州島方言에서 尊待의 뜻을 表示하기 爲하여 特異하게 使用되는 {—마씀}에 對하여 活用語尾와 體言에서의 結合 樣相을 共時的으로 記述하고 文獻語와의 對比에서 그 形成과 方言化를 考察한 것이다. 이제 要旨을 들어 結言으로 삼고자 한다.

1. {—마씀}의 統辭構造上的 位置는 文尾에 固定되고 있고, 先行하는 語形은 體言, 用言의 活用形으로 이들에 {—마씀}은 後行하는 것이다.

2. {—마씀}에 先行하는 語尾의 성분은 修飾形式의 /—아/, /—어/, /—게/와 /—아/, /—게/로 分析할 수 있는 構造의 終結形式을 爲始하여 /—ㄴ/을 末尾子音으로 한 修飾形式의 語尾 그리고 /—앙/을 語末語尾로 하는 修飾形式 등이다. 그러므로 {—마씀}은 用言의 機能을 가진 形態라 할 수 있다.

3. {—마씀}은 體言에도 連結되는데 이 경우의 文脈의 意味는 方言의 “말이우까”와 一致하고 “말(言·辭)+이다”로 分析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構造는 先行語가 用言인 경우 修飾形式에 呼應하는 것으로 “體言(下待의 二人稱代名詞 除外)+말+敘述格語尾 이우다” 또는 “體言+格語尾+말+敘述格語尾이다”의 成分과 序例로 連結된다.

4. 標準語에서 “말씀”의 對立語가 “말”인 것처럼 方言에서는 {—마씀}의 對立語가 “말이라” “말이다”로 나타난다.

5. 以上 {—마씀}이 添加되는 用言과 體言의 構造的 成分, 機能과 標準語와의 對比에서 보아 {—마씀}은 본디 “말씀”에서 /—ㄹ/ 脫落을 거치면서 用言의인 기능으로 變하고, 뜻도 用言에서는 /—ㅂ—/, 體言에서는 “우다”의 /—우—/와 同一한 相對尊待의 表示로 轉移된 方言形인 것이다.

## 參 考 文 獻

- 金敏洙：「國語文法論」，一潮閣，1971.
- 劉昌惇：「國語變遷史」，通文館，1961.
- 李崇寧：「中世國語文法」，乙酉文化社，1961.  
「國語學論攷」，東洋出版社，1960.
- 李基文：「國語史概說」，民衆書館，1972.
- 李仁模：“中世國語의 叙法研究”『梁柱東博士華誕紀念論文集』，서울，1963.
- 李吉鹿：「國語文法研究」，日新社，1974.
- 許 雄：「中世國語研究」，正音社，1963.
- 玄平孝：「濟州島方言의 定動詞語尾研究」，1974.
- 千時權：「國語意味論」，螢雪出版社，1973.
- 金宗澤
- 姜根保：“濟州島方言「잇다」活用考”，『논문집제4집』(제주대학)，1972.  
“濟州島方言語彙考(一)”『國文學報4』(제주대학)，1972.